

더글러스 그루타이스 지음 | 이경직 옮김 | 도서출판 연암사

예수는 훌륭한 철학자이다!

## 철학자 예수

신상형

### 읽기 전에

“철학은 어떤 방법으로도 말의 활용법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철학은 그 법을 궁극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철학은 어떤 기초를 제공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철학은 매사를 있는 그대로 놔둔다.” (『철학탐구』, 12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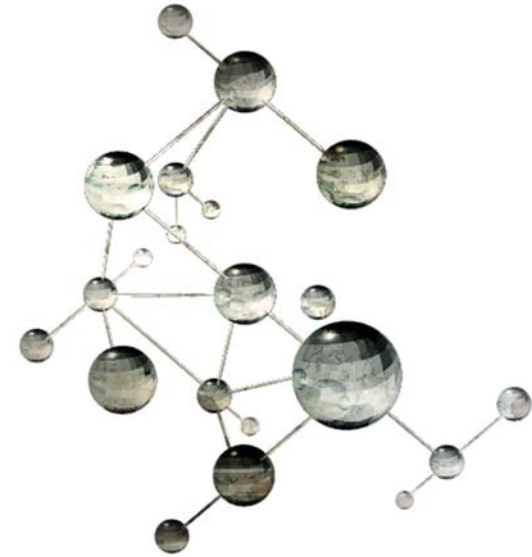
필자는 비트겐슈타인의 이 말을 참 좋아한다. 철학의 역할을 가장 바람직하고도 말끔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철학을 오해하고 있다. 오해는 단순한 무지에서도 나오지만, 대부분이 기대와 욕심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주장이나 지식을 지성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철학을 이용하거나, 반대로 사고를 정지시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철학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철학을 오해한다. 그러나 아무리 철학을 자기 맘대로 정의해서 이용하거나 배척해도, 사고가 이루어지는 한 본래의 철학은 사라지지 않는다. 철학과 사고의 관계는 말과 문법의 관계와 같다. 말의 폐해를 피해 고립무원의 수도원에서 정진하는 묵인수행자조차도 결국은 말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 말의 문법을 지켜야 하듯이, 사람은 사고를 해야 하고 그 사고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 말 속에 문법이 있고, 문법은 말을 떠날 수 없다. 사고가 그 규칙에 해당하는 철학을 떠날 수 없고, 철학이 사고를 떠나 저 혼자 존재할 수 없다. 문법과 철학적 규칙을 어긴 말과 사고는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한다. 문법과 철학은 말과 사고를 정확히 일러준다. 예수는 말씀으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깨우쳤다. 지식을 주기도 했지만 통찰력을 베풀어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진리가 살아있고 영향력을 주는 최대의 사고체계가 되게 했다. 이런 세계 최대의 보편적 진리의 주장인 예수를 철학자라고 보지 않을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물론 예수는 단지 철학자일 뿐이다! 라고 오해하면 안 되겠지만.

### 읽기 시작하면서

『철학자 예수』를 읽을 때 우리는 사실상 ‘역사적인 사건’에 참여한다. ‘역사적 사건’이란 독자가 다른 저술을 읽을 때 하는 수동적 독서와는 달리, 그 논의에 가담하는 적극적 독서를 피할 수 없는 사태를 말한다. 왜냐하면 독자는 신자건 아니건 간에 이제 저자(더글러스 그루타이스)의 주장을 파악해야 하고, 동시에 그 주장의 진위를 판단해야 하는 ‘철학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철학 작업’이란 독자가 스스로 예수를 철학자로 규정하는 저자의 논증에 결국 찬반을 표하게 되리라는 뜻이다. 평자는 이참에 먼저 ‘예수는 철학자인가?’라고 묻고서, 〈그렇다〉 혹은 〈아니다〉라고 독자 자신의 결론을 낸 뒤에 그 이유를 찾아 들어가라고 권하고 싶다. 틀림 없이 뿌듯한 보람을 느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 읽으면서

적극적 독서자들은 목차를 보면서 흥미를 끄는 소재목으로 바로 달려가기를 독자들에게 권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 만큼은 일단 제1장 〈예수는 철학자이었는가?〉부터 살피기를 제안한다. 아직도 예수를 철학자라고 규정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낯설기 때문이다. 전문 학술논문이 아닌데도 저자는 ‘예수는 철학자이다.’라는 명제를 꼼꼼하고도 진지하게 논증하고 있다. 제1장을 천착해서 읽고 나면 나머지 장들은 수월하게 읽힌다. 그런 다음 이어서 예수 자신의 논증방식을 기록한 3장을 읽고, 건너 뛰어 8장을 읽고 나면 자연스레 예수 그리스도의 철학적 범위와 방법의 탁월성을 알게 될 것이다. 우선 1장에서는 예수를 철학자로 보지 않는 견해에 대한 여러 선입견들을 다루면서 저자는 그런 편견의 조건들을 일일이 반박한다. 물론 선입견들은 철학자를 우위에 두고 예수를 그에 못 미치는 하수자라는 편견들이다. 첫째 조건은 예수를 방법론적으로 반성하고 자기 생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철학자의 자격에 미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철학자들을 거론하면서 저자는 소크라테스와 니체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을 그 예로 들고 있다. 그들의 학의적인 기준을 비판하는 것이다.



둘째, 저자는 추론상 무모순물을 드러내면서 예수의 언변에 모순이 들어있음을 주시시키는 사람들과 맞선다. 예를 들어 예수의 가르침을 평화라고 정의하고는, ‘내가 칼을 주러 왔다.’라는 구절(마 10:34-39)을 평화를 얘기하는 구절(마 5:38-42)과 대조시켜 그 가르침을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표층문법의 차이이지 문맥상 전혀 상호 모순적이지 않으며, 이런 대조적 구절들의 어느 것도 참된 모순관계가 아님을 일일이 입증한다.

셋째, 철학체계를 세워야 철학자로 대접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거꾸로 철학체계를 해체하면서도 철학방법을 발전시킨 대가 비트겐슈타인의 사례를 통해 그 주장의 부당함을 저자는 논증한다. 이런 저자의 관점에서 볼 때 질서정연한 논리적 설명과 반대자들에 대해 이성적 논증을 펼친 예수는 서구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철학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빛째, 공격의 조건은 예수의 가르침이 예언적이거나 초자연적이기에 예수가 철학자가 되기에는 부적격이라는 견해이다. 물론 이것은 예수를 낮추어 그럴 수도 있고, 예수를 성스럽게 여겨 그를 철학자라고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길 수도 있다. 우선, 신의 영감을 받아 무엇을 말할 때, 왜 꼭 이전의 비슷한 사례를 들어 비판하는 우회적인 방법만 쓸 필요가 있는나고 반박하면서, 저자는 하늘로부터 직접 받은 진리를 예수께서 직접 인용하듯 쓰는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소위 자명한 지식이 있다는 것이다.

또, 예수가 철학자임을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신자들을 향해, 성육신한 하나님이 열등한 존재들과 철학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초자연적 영감이라는 방법의 사용이 반드시 유일한 계시의 방법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저자는 야스퍼스를 들어 소크라테스와 예수의 방법이 최고의 설득력을 지닌 논증임을 예시함으로써 예수의 '좋은 논쟁'을 강조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예수의 역사성을 다루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역사성에 대한 객관성을 문제 삼는다는 것을 전제로 저자는 철저한 고증을 통해 예수에 관한 기록의 사실성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철학자들의 허약한 역사적 고증과는 대조적으로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철학자가 예수임을 저자는 복음서의 특징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복음의 텍스트 전송〉에서는 복음서의 원형이 다양한 번역본의 비교를 통해 그 원뜻이 재현됨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에 관한 외부 자료들〉에서는 수많은 사료들과 고고학적 유물들의 발견으로 그 사실이 여러 차원에

서 증명되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복음서의 솔직한 진술에서 보이는 사건들의 사실성으로 제고된 신빙성을 저자는 강조한다.

제3장에서는 예수의 가르침에 나타난 논증방식들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논증의 과정에서 '명료하게 집중하고, 타당하게 대화하고, 도달된 진리를 기꺼이 따르려함으로써 논리와 논증을 존중하는 길을 택하는' 우수한 논증가로서 예수를 묘사한다. 동시에 예수가 바리새인과의 논쟁에서 달레마에 걸리자 뿔 사이로 피하고, 강이유 논증(더 강한 것으로부터의 논증)을 통해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증거주의를 택하고, 귀류법 운영을 자유자재로 행사했음을 예시함으로써 저자는 예수의 논증의 풍요로움을 역설하고 있다.

제8장은 이 책의 또 다른 차원을 말한다. 즉 예수의 철학이 단순히 기존의 철학전문영역에 갇혀있는 학문성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철학적 주제'임을 깨우쳐주고 있다. 그것은 철학이 미네르바의 올빼미처럼 황혼 녘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 과거의 사실들만을 추스르는 과업으로 끝날 수 없음을 저자는 우리에게 깨우쳐준다. 철학이 인간과 우주 및 역사의 모든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라면, 왜 예수의 정체와 십자가 죽음 및 부활의 통시적인 사건을 굳이 피해야 할까? 철학자 예수를 만남으로써 우리는 철학의 또 다른 차원의 범주를 인지해야 하지 않을까를 저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제4장은 형이상학으로 모든 존재에 관한 예수의 관점을 다룬다. 다른 철학자들과 구분되는 예수의 태도는 모든 존재와 존재자의 문제(신, 인간, 초자연적 존재, 사후세계, 등)에 대해 분명하고도 깔끔하게 변론하지

회이나 중립적 언급은 없다는 것이다. 철학이라고 반드시 회의적이거나 중립적 태도를 견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 제5장 인식론에서 저자는 진술의 진리여부를 위한 정당성의 기준으로 사실적 증거와 아울러 비유를 통한 풍성한 증거의 방법들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의 인식지평의 확장을 주문한다. 제6장은 예수의 윤리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윤리〉, 〈하나님 나라의 덕들〉, 〈신적 의무: 의무론〉 등을 통해 철학의 범주들 속에서 기술하고 있다. 제7장 예수의 여성관에서는 "그가 여성과 남성 모두를 하나님이 인류와 함께 걷는 길들에 관해 대화할 자격과 가치를 지닌 존재로 여겼다."라고 결론을 내리며, 역설적으로 현대에서 여성사도가 없음을 심각하게 문제 삼음으로써 저자는 현대기독교인들의 닫힌 사고를 지적하고 있다.

#### 읽고 나서

이 책은 얇지만 결코 작은 책이 아니다. 그저 짤을 내서 읽다가 말 책은 더더욱 아니다. 각 장이 논증과 고증으로 채워진 '묵직한' 고전이다. 밑줄을 그어가며 생각을 정리해야 따라갈 수 있다. 한번 대결한다는 심정으로 이 책을 '진지하게' 섭렵하고 나면, 어지간히 두꺼운 책들은 하루 이틀이면 푹푹 해치울 정도의 자신감과 사고력의 심화

“ 그가 여성과 남성 모두를 하나님이 인류와 함께 걷는 길들에 관해 대화할 자격과 가치를 지닌 존재로 여겼다 ”

와 확장을 육성시켜줄 수준 높은 책이다. 만만치 않은 이 책이 유려한 문장으로 바뀐 데는 옮긴이(백석대 이경직 교수)의 능력과 노력 덕택인 것 같다. 〈읽을거리〉에서 동일한 주제의 책을 소개하는 것도 세련된 팁이다. 그러나 너무 진지한 논의와 무미건조한 서술은 이 책의 옥의 티로 생각된다. 어쨌든 이 책과 한 번 겨뤄보는 독자는 '예수의 철학'을 선물로 받으며 기뻐할 것 같다. 필자는 이 책을 덮었다 폼다하면 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 같다.



신상형 현재 인동대학교 동양철학과 교수(서양철학 담당, 철학박사)이다. 비트겐슈타인을 연구하여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기독교철학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기독교의 세계적 기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